

# 수능 성적, 광주 평균 못미치고 전남 최하위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분석

광주와 전남지역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상·하위권 학력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의 적절한 학력 지도와 입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여서 정시 확대 기조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입시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학년도 수능 국·영·수(가·나) 등급별(1~9등급) 성적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어, 수학(가·나)의 표준점수 평균 모두 서울이나 광주와 같은 대도시가 높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순으로 낮게 나왔다.

영어 과목도 대도시 학생들의 1·2등급 비율은 22.5%에 달했지만 중소도시는 18%, 읍면지역은 14.7%에 그쳐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규모(지역)별 수능 성적 차이는 광주와 전남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국어의 경우 최상위권인 1등급 비율(전체 수능 응시생 대비(일명 전체 기준) 3.5%)이 광주는 2.3%였지만, 전남은 2.1%에 그쳐 경남 1.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상위권인 2등급 비율(전체 기준 5.6%)도 광주 5.6%, 전남 4.3%로 차이가 났다. 최하위권인 9등급 비율(3.9%)은 광주 2.9%, 전남 4.2%로 전남이 광주보다 많았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많이 응시한 수학(가)에서도 광주·전남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벌어졌다.

광주 학생들의 경우 3.1%가 1등급이었지만 전남 학생들은 1.1%만이 1등급이었다. 전남의 경우 2등급까지 다 합쳐도 3.5%에 그쳐 광주 1·2등급 비율 8.6%와 큰 차이를 보여, 전남 학생들의 수학(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등급 비율(3.7%)은 광주 3.5%, 전남 5.5%였다.

인문계열 수험생이 많이 치른 수학(나)의 경우 1등급 비율(3.6%)이 광주는 1등급 3.6%, 2등급 5.7%였지만 전남은 1등급 2.5%, 2등급 4.0%에

**‘실력 광주’ 옛말...국·영·수 1·2등급 비율 낮아져  
전남 수학(가) 하락... 국·영 하위등급 비율도 높아  
정시 확대 대비 적절한 지도·입시 대책 마련 시급**

머물렀다. 9등급 비율(3.5%)은 광주 3.5%, 전남 3.3%로 광주가 전남보다 다소 많았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영어 절대평가의 경우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는 5.4%가 1등급, 14.3%가 2등급으로 무려 5명 중 1명이

80점 이상이었지만, 전남은 1등급이 3.6%에 그치고 2등급도 10.0%에 머물렀다. 9등급 비율(2.2%)은 광주 1.8%, 전남 2.6%였다.

이와 관련 입시 전문가들은 광주의 경우 수학(나)를 제외한 국어, 영어, 수학(가)에서 1등급 비

율이 전체 기준에 못 미쳐 ‘최상위권 성적’은 도드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수학(가)이 하락하면서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이 도시 학교 위주의 광주보다 학력이 열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실력 광주’라는 말이 약간 퇴색해진 결과”라며 “수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력 지도와 입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승촌보·죽산보 당장 해체하라” 세계 물의 날인 22일 오후 광주환경연합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지역 20여 환경단체가 나주 영산강 일원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통합운영학교법 개정 촉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와 국회에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22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최근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및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지만, 읍·면·동 근무 공무원에게는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 간 교차 지도에 대한 조항이 없어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하고 초·중등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심의·의결,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서남동 인쇄거리 요즘식관광 거점 된다 동구, 2023년까지 40억 투입

광주시 동구가 서남동 인쇄의 거리에 ‘아시아 음식관광 명품화 거점’을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간조성은 아시아음식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음식은 물론 글로벌 관광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문화도시 동구의 명소로 특화시키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기본시설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시아음식관광 전문 인력 양성 ▲아시아푸드 랩(lab) 설치 ▲주먹밥 등 광주의 대표음식 7미(味)의 고품격 브랜드 상품화 추진 ▲남도 음식과 아시아푸드 사이의 역학적·비교문화적 검증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기능적 협력체계구축 등 체험·교류·놀이가 어우러진 다양한 융·복합 관광분야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폐지 줍는 노인 10명 중 8명 ‘70대 이상’

도, 첫 실태조사...500명 중 절반 이상이 ‘독거’

전남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이 70대 이상이었으며, 5명은 홀로 살고 있었다.

전남도는 22일 “폐지 수거 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홀로 살고 있고, 건강은 양호한 편이나 대다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돼 노인 일자리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간 전남도는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도내 530명의 폐지 수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 및 생활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 중 94.3%인

500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노인 500명 중 남성이 56%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75~79세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70~85세가 82%나 됐다. 폐지수거 노인 중 51%는 홀로 사는 노인이었으며 부부가구는 39%였고, 조손가정은 1%로 가장 적었다.

건강 상태는 46%가 양호했으며, 54%는 불편하다고 답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 가운데 25%가 등록장애인이었다.

또 484명이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6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돼 총 98%가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폐지수거 노인 중 10%의 노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1%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수거 노인의 44%는 건강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를 힘들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초등생 지원 대학생 보조 강사제 광주시교육청, 6월 4일까지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오는 6월 4일까지 대학생 보조 강사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9년째 실시하는 대학생 보조 강사제는 광주교대 3학년 재학생들이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습 보조 및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326명의 대학생 보조강사가 주 2회 4시간 동안 해당 초등학교(43개교 150학급)로 출근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이들 대학생에게 교통비 등 일부 실비를 지급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